마음구조의 창조적 파괴

(이사야 6:11~13)

11.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음구조의 창조적 파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구조의 창조적 파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라는 질문에서 대체 무엇이 어느 때까지냐는 것입니다. 바로 앞 9절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일부러 자기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고 갖고 있던 신앙적 지식과 영적생활의 지침들에 대해서 왜 혼란스럽게 하느냐? 너는 마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약이 올라서 우리의 구원이 무효라고 떠들면서 구원받음을 왜 방해하느냐'라고 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되려면 앞에서 본대로 6~7절에서 "그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라고 한 것처럼 번제단에서의 상번제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이것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알아듣질 못합니다.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언제까지냐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을 버렸습니다.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최고로 믿어져서 최초로 관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첫 번째로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말씀은 혼돈만 가중시킬 뿐이고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인가 하면 '성읍과 가옥과 토지가 황폐하게 될 때까지'라고 하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도시와 주택과 사업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기반이 전면적으로 파괴되는 것이고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삶의 기반과 환경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6장은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올바르게 전해도 선민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불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소명을 받는 순간에 도저히 주어져서는 안 될 불길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이사야를 보낼 것인데 그 말씀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씀을 전하게 될 사랑하는 조국과 백성이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망하는 순간이 될 때에 불통의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누가 수행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파괴가 '창조적 파괴'라고 하십니다. 긍정적인 목적을 향하여 지금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는 경제용어입니다. 낡은 것은 계속 파괴하고 새로운 것은 계속 창조하면서 끊임없이 경제구조를 혁신해가는 과정이 없으면, 어떤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고 어떤 나라도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는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가 보편화시켰는데 과연 이 경제학 개념을 실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을 탐구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라는 책을 쓴 리처드 포스터와 사라 케플런의 공저인 '창조적 파괴, 미래를 지배하는 기업성장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1917년에 발표한 미국의 100대 기업이 있습니다. 이후로 70년 지나서 1987년에 확인을 해보니 살아남은 기업은 39개였습니다. 더군다나 70년이 지난 후에 여전히 100대 기업에 속한 기업은 18개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8개 기업조차도 시장의 수익률보다 20% 낮은 수준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탄탄한 기업이나 뛰어난 기업으로 평가되자마자 쇠락의 길로 들어서면서 100대 기업 안에 머물고 있던 기업들조차도 쇠락하는 분위기 속에서 버텨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장수기업의 비밀은 기술혁신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구조나 공장의 생산구조도 바뀌고 시장의 규모도 바뀐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생산구조나 경영구조는 파괴되어야만 한다는 말입니

다.
이 이론이 맞는지 확인을 했더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기업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의 미래에 있어서 현재의 의미는 파괴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도 지금이 되면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파괴시켜야 발전적 미래가 오고 발전적 미래가 지금이 되면 또 파괴시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제부터 오늘로 이어지는 이 구조를 파괴시켜 나가지 않으면 발전적 미래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파괴는 어떤 측면에서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출애굽과 광야생활 그리고 가나안복지 정복전쟁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복지에 정착한 선민들의 삶을 근원적으로 파괴시켜서 이방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민들의 마음구조를 파괴하시기 위해서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왜 삶의 기반이 무너져야 마음구조가 파괴된다는 말입니까? 마음의 구조는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어떤 대상이 들어옴으로서 인격으로 살기 위한 기본구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돈이라면 돈이 마음 채움의 최고로 믿어져서 마음에서 돈을 붙잡습니다. 또는 건강을 붙잡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기쁨과 만족이라면 자녀를 믿는 것인데 이게 마음구조입니다. 최고 최초의 것을 붙잡고 있는 상태가 마음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민들이 마음에서 최고로 붙잡고 있는 것을 들여다봤더니 전부 이 세상의 것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것들을 최고로 믿고 최초로 붙잡고 있는 마음구조였습니다.
이 마음의 구조를 파괴시키려면 최고로 믿는 땅의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반인 성읍과 가옥과 토지를 황폐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 안에, 가정 안에, 사업이나 직장 안에 마음구조를 형성시켜주는 최고 최초의 대상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최고 최초의 대상들이 사라지는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반들을 완전히 파괴시키십니다. 이렇게 선민들의 마음구조를 파괴해야 비로소 마음이 최고 최초의 대상이 들어서는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죄가 최고 최초의 자리에 이 세상의 것들, 육체를 통하여 만나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붙잡아 당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 최초로 믿어지고 붙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만나지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최고 최초로 믿고 붙잡고 있는 마음구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혼동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말씀이 돈이 최고라는 마음구조 안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기껏 애써서 듣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최고 최초의 자리에 있는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으로 받아들입니

다. 또한 최고 최초의 자리에 건강을 담고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자녀를 담고 자녀의 형통을 바라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라고 하였습니다.

‘없다’라는 말이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그 당시의 성읍과 가옥과 토지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가 실지로 일어났다고 가정해서 표현하자면 여섯 번의 ‘없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세상에서 주어질 수 있는 최고 최초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여섯 번의 ‘없다’라는 말 뒤에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노리시고 선민들의 마음구조를 파괴시키시기 위해서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적 파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원죄적 마음구조를 파괴시키지 않고 이 마음구조를 고스란히 인정한 상태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선포가 아니라 광고가 됩니다. 소비자 취향에 맞추어진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는 것은 파괴자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떤 사람 앞에서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상태의 마음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로 믿어지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첫 번째 마음의 관계의 자리에 다른 대상을 끌어들이는 마음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설교는 완전히 웃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창조적 파괴자로 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 위해서 기존의 마음구조를 파괴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구조를 파괴시키려고 할 때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자식이 잘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자식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에게, 자식을 붙들고 있는 마음구조가 파괴되어야 한다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인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백세에 얻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구조를 파괴시키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기껏 주시고는 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마음에 최고로 믿어져서 첫 번째로 붙잡은 마음구조를 파괴시키십니다. 그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마음의 구조를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구조를 파괴시킨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3절에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십분의 일이 1차 파괴 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파괴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철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라고 하십니다.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는 것처럼 이 땅의 그루터기들이 되는 거룩한 씨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마음구조가 파괴되려고 하는 바람에 삶의 기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최고요 최초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선민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선민들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반응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불평했던 것과 같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를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여호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합니다. 결국 가나안 복지를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네피림의 후손인 거대한 아낙 자손이 이미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빼앗아 차지하겠냐며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라고 반응하였습니다.
한편 마음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여 최고로 믿어졌던 것들이 파괴되고 난후 그동안 못 보고 있었던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고 하나님을 뵙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씨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적 조건을 마음의 최고로 믿고 첫 번째로 관계하는 환경이 파괴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과 같습니다. 완전히 다 파괴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민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대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 들이고 ‘~이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씨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름 받은 선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원죄적 체질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같은 마음구조로서 회귀성이 불사신입니다.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간 후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포로귀환이 이루어져서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시켜야 될 정도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지 70년 만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더 옛날로 돌아가서 출애굽 때에 열 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시는 과정을 통해서 광야생활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원죄적 마음구조의 불멸의 회귀성 때문입니다. 틈만 있으면 마음은 육체를 통해 만나는 것들 중에서 최고로 믿고 최초의 자리에 자동적으로 들여놓게 됩니다.
이 원죄의 체질이 끊임없이 파괴되려면 결국 내 삶의 환경이 끊임없이 파괴되어야만 하는데 이래서야 선민의 삶이 어떻게 지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환경이 파괴되지 않아도 마음구조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최고 최초로 붙잡고 있는 마음구조가 파괴될 수 있는 사건이니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리려는 원죄적 체질이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자동적으로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세상 것을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걱정하고 그것이 훼손될까 걱정하고 그것을 많이 가지고 싶어서 걱정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의 성인도 원죄적 체질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최고 최초로 붙잡는 마음구조를 끊임없이 파괴시켜 나가지 않으면 1년 뒤 2년 뒤에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장 추악한 오늘의 죄인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세상 것을 최고 최초로 붙잡는 마음구조를 끊임없이 파괴시켜 나가면 2년 뒤 3년 뒤에 성인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미래를 밝히기 위하여 기업들이 지금 현재를 파괴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십자가 생활화가 복음입니다.
환경이 파괴되기 전에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마음구조를 파괴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원죄적 체질은 우리 안에서 불사신처럼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죄적 체질이 몸을 입고 사는 생애가 마칠 때까지는 계속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현재를 파괴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육체로 만나고 보고 듣고 만져지는 것들을 최고로 믿고 첫 번째 대상으로 관계하려는 이 마음구조를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은 자로 여기며 파괴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만 하면 내 삶의 구석구석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이사야의 소명이 주는 메시지는 목회자들에게, 말씀사역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십자가를 전함으로써 내 앞에 서있는 사람의 마음구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거룩한 싹이면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받아들임의 양상도 오늘은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욕을 하고 발로 찼다가도, 5년 뒤에 받아들일 수도 있고 10년 뒤에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거룩한 씨인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십자가 생활화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듣는 자들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창조적 파괴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끊임없이 원죄적 체질의 마음구조를 파괴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이 땅의 삶은 모든 상황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